

스프린터 시리즈 마지막 레이스 주인공은?

경마에서 1200m는 1분10초 내외로 승자가 결정되는 최단거리 레이스다. 19일 일요일 서울경마공원에서 제9경주로 열리는 '제30회 SBS스포츠스프린트'(GⅢ, 혼합 3세 이상, 레이팅 오픈, 총 상금 4억 5000만 원)가 1200m를 달리는 대표적인 단거리 레이스다. 1993년부터 시작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경주로 2015년부터 1200m로 경주를 진행한다.

'SBS스포츠스프린트'는 한국경마를 대표하는 단거리 우수마를 선발하는 '스프린터' 시리즈의 마지막 레이스다. 스프린터 시리즈 최우수마에 선발되면 1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4월24일,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열린 시리즈 첫 경주 '부산일보배(GⅢ)'는 어머머마, 두 번째 '서울마주협회장배'(GⅢ)는 블랙머스크가 우승했다.

●어머머마(수, 미국, 5세, 레이팅133, 승률 68.8%, 복승률 81.3%)

지난해 SBS스포츠스프린트 경주 우승마이자 올해 스프린트 시리즈의 첫 경주 '부산일보배' 승자다. 이번 경주 우승 후보 1순위다. 라이벌 라온더파이터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부담감을 덜었다. 7연승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 상반기는 기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부산일보배' 우승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실버올프와 다이아로드 등 명마들을 배출한 송문길 조교사(40조) 마방에서 요즘 가장 핫한 경주마다. 이번 주 복귀하는 문세영 기수와와 호흡도 관심사다.



어머머마



블랙머스크



모르피스

1200m 단거리 최강마 자존심 싸움 어머머마, 문세영 기수와 호흡 기대 블랙머스크, 1400m 경주 우승 괴력 모르피스, 최고령 불구 폭발력 여전 최우수마 선발 댄 1억 추가 인센티브

●블랙머스크(수, 미국, 4세, 레이팅117, 승률 61.5%, 복승률 76.9%)

스프린트 시리즈의 두 번째 경주 '서울마주협회장배'(GⅢ)에서 깜짝 우승하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선입, 추입 모두 능수능란한 올라운드 플레이어이다. 올해 함께 3승을 기록했던 유승완 기수가 이번에도 함께 한다. 3월 1등급 1400m에서 어머머마와 대결해 승리한 바 있다.

●소울메리트(수, 미국, 5세, 레이팅83, 승률 50%, 복승률 50%)

지난해 11월 복귀 이후 4연승을 기록 중이다. 부마가 2015년 미국의 삼관마였던 아메리칸 파로이다. '명장' 박대홍 조교사가 맡고 있다. 혈통과 조교, 훈련 면에서 결코 부족할 게 없다는 말이다. 최근 경주 형태를 보면 후반이 강해 단거리지만 후반부를 집중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5세의 나이에 비해 전적이 많지 않고 대상경주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 변수다.

●클린업해피(거, 한국(포입마), 5세, 레이팅92, 승률 37.5%, 복승률 68.8%)

지난해 8월부터 1200m만 6번 출전해 우승 2회, 준우승 3회를 거둔 단거리 강자다. 초반 선입이나 선행에 강한 말로 선두권을 유지했던 경주에서 성적이 특

히 좋다. 부마는 한국마사회 소속으로 세계랭킹 1위를 달성한 경주마 닉스고를 배출한 페이트너. 외조부는 2017년 북미리딩 사이어(당해 최고 씨수마)로 선정된 언브릴즈 송이다.

●모르피스(거, 미국, 7세, 레이팅128, 승률 27.8%, 복승률 47.2%)

7세 베테랑 노장으로 2020년 SBS스포츠스프린트 챔피언이다. 만만치 않은 후배들 사이에서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지만 풍부한 대상경주 경험과 노련한 관록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서울마주협회장배(GⅢ)에서 출전마 중 가장 나이가 많았음에도 블랙머스크와 라온더파이터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8전 2승6패로 지난해 챔피언 어머머마와의 맞대결은 열세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정기환 마사회장 등 청렴 리더십 교육 수강

정기환 회장, 이재욱 상임감사위원 등 한국마사회 임원들은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제6기 청렴 리더십(고위직)'과정 수강을 위해 청주 청렴연수원을 방문했다. 청렴연수원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청렴교육 전문기관이다. 이번 교육과정엔 주요 공공기관 고위 공직자 4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반부패 주요 법령과 청렴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진행됐다.

렛츠런재단, 용산장학관 심신 케어 프로그램 운영

렛츠런재단은 용산장학관에 입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헬스 트레이닝과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사진 설문조사에서 참가를 희망한 20여 명이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헬스 트레이닝은 장학관 체육단력장에 외부 트레이너를 초빙해 5회에 걸쳐 각종 운동기구의 사용법과 근력, 지구력을 기르는 방법 등을 지도했다. 심리 케어는 한국마사회 심리상담 기구인 유켄센터의 상담사와 외부 전문가가 대면으로 심리상태 검사와 치유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학생 1명당 최소 6회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마사회, 2030 소통 위한 청년참여혁신단 모집

한국마사회는 21일까지 청년참여 혁신단 1기를 모집한다. 20대에서 30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내년 4월 까지다. 마사회 정책에 대한 오피라인 또는 5분 내외 온라인 설문과 홍보, 국민참여 활동 만족도 조사 및 BP대회 심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우수 활동자는 종로 시포상한다. 모집은 20명~30명 내외로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francisco1207@kra.c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경마 100년 발자취, 한 곳에 다 모았다

서울경마공원에 100년 기념관 오픈 명마들의 사진·영상·트로피 등 전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한국경마 100년을 기념해 5월 서울경마공원 관람대에 특별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바로 '한국경마 100년 기념관'이다.

한국경마의 역사는 우리나라 근현대의 역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최초의 공식 경마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에서 시작되었다. 1942년 전국의 경마구락부를 통합하며 발족된 조선마사회는 1949년 9월29일 한국마사회로 새롭게 태

어났다. 마사회의 창립기념일이 1922년이 아닌 1949년인 이유다.

한국경마는 소득 증대와 그에 따른 여가 확산 문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1990년대 비약적인 매출 증대와 함께 경마 인프라에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했고, 2000년대 들어 국제화에 주력하며 PARTII 경마시행국가로 발돋움했다. 지난해는 마사회 자체기술로 발굴한 경주마 닉스고가 세계랭킹 1위를 달성했다. 기념관 벽면에는 자랑스러운 한국경마의 주요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략한 소개와 함께 역사적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마의 도약을 이끌어온 주인공은 경주



마다. 이번 전시는 각종 기록을 세우거나 라이벌전을 통해 명성을 떨쳤던 명마들을 추억할 수 있도록 영상, 사진, 트로피들을 전시하여 명예의 전당으로 꾸며졌다. 독점 경마장 시절 통산전적 25전 20승을 기록한 포경선을 비롯해 한국경마사상 최초로 팬들이 은퇴식을 열어준 백광, 한국경마 최초 두바이 월드컵카니발에 출전해 3위에 오른

석세스스토리 등 역사에 남을 경주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박태종, 문세영 기수처럼 경마 초보자들도 익숙한 스타 기수들뿐만 아니라 미스터파크, 감동의바다 등 많은 명마들을 배출한 김영관 조교사, 연기자이자 한국경마를 홍보하는 김용우 마주, 국산 경주마 생산역사의 산 증인 김순진 생산자 등 경마산업의 숨은 공로자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한국경마는 100년 동안 수많은 경마 종사자들의 노력과 고객의 관심 덕분에 현재 매출 기준 세계 7위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100년의 성과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니 많은 고객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함정우 단독 선두·강예린 공동 2위...골프부부 '함박웃음'

함, 하나은행 1R 보기 없이 8언더파 강, 여자오픈 1R 선두에 1타차 추격 "아내에게 우승컵 바치는게 올해 목표"

6년 열에 끝에 올 3월 결혼한 28살 동갑내기 '골프 커플' 함정우와 강예린이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나란히 웃었다. '부부 최고의 날'이었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에서 뛰는 함정우는 16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남춘천CC 빅토리·챌린지코스(파72)에서 열린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 원·우승상금 2억 원) 1라운드에서 단 하나의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낚아 8언더파 64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강예린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레인보우힐스 CC 남·동코스(파72)에서 열린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2억 원·우승상금 3억 원) 1라

운드에서 5언더파를 쳐 2연패를 노리는 박민지(24·6언더파)에 이어 공동 2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남편이 8언더파로 먼저 경기를 끝냈을 때, 아내의 한창 플레이 중이었다. 함정우는 "내 경기 끝나자마자 아내 스코어를 확인하니 3타를 줄이고 있었다"고 자신의 성적보다 아내 스코어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음을 내비치며 "아내가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편의 응원에 힘을 얻은 아내는 이후 2타를 더 줄였다.

함정우는 "서로 대회장으로 가기 전에 '이번 주도 잘하자', '돈 많이 벌어 오자'라는 대화를 한다"며 '골프 커플'만의 대화를 살짝 공개한 뒤 "이번 대회를 앞두고선 일요일 밤에 만나자고 약속했다"고 했다. '일요일 밤에 만나자'는 말은 둘 모두 컷을 통과해 최종 라운드까지 마치는 의미.

"사실 서로의 골프에 대해 깊게 대화하지는 않는다"고 털어놓기도 한 함정우는 "올해 시즌 개막 전 목표가 결혼한 아내에게 우승컵을

바치는 것이었다"며 "이번 대회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투어에서 2승을 거둔 함정우와 달리 강예린은 아직까지 정규투어에서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다. 2014년 KLPGA 투어에 데뷔해 그해 8월 MBN여자오픈에서 거둔 준우승이 개인 최고 기록. 한때 정규투어 시드를 잃기도 했지만, 결혼 이후 처음 맞은 올 시즌에는 지난해 셸트리온 퀸즈 마스터스까지 올 시즌 열린 10개 대회에 모두 출전해 단 1번을 제외하고 9번 컷을 통과하는 안정적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강예린은 "남편은 생각없이 쳐야 잘 치는데, 요즘은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 평소처럼 치라고 했다"며 "남편이 스폰서 대회라 부담이 큰 것 같은데, 부담감을 내려놓고 잘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원사 주최 대회에서 시즌 첫 승 기회를 잡은 함정우는 "18개 홀에서 그린을 놓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만족감을 내비친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 11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는 함정우(왼쪽)와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0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는 강예린.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 11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는 함정우(왼쪽)와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0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는 강예린.

뒤 "아이언샷이 상당히 잘 됐다. 3단, 4단 그린이 있고 마치 종이를 구겨놓은 것처럼 그린 난도가 굉장히 높지만 운도 따라준 것 같다"고 말했다.

"프로선수로서 메인 스폰서가 주최하는 대회서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가장 큰 목

표"라고 설명한 뒤 "하지만 잘 하려고 하면 오히려 플레이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내 스타일대로 스코어에 연연하지 않고 재밌게 치겠다"고 덧붙였다. 음성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